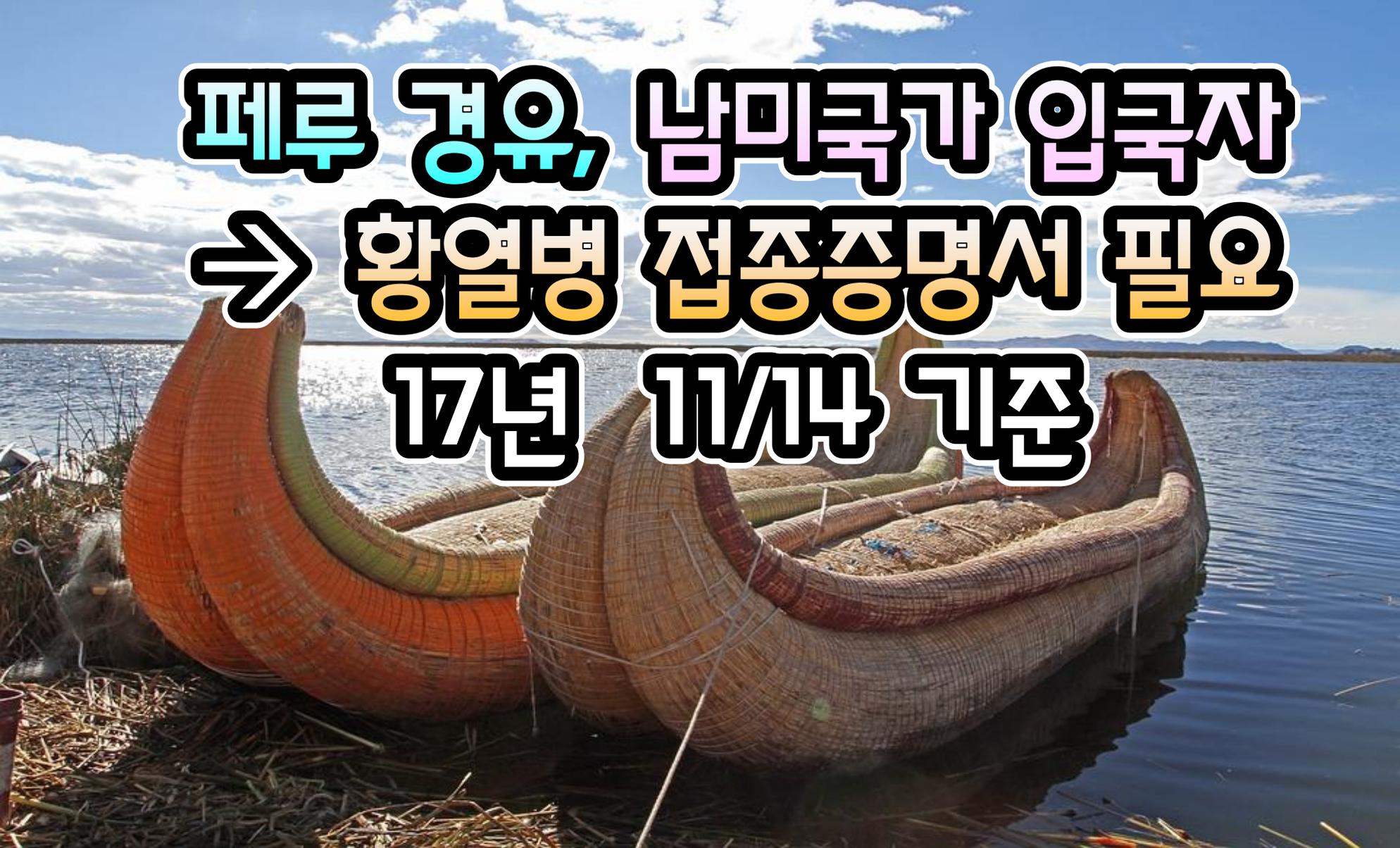


페루 경우, 남미국가 입국자

→ 황열병 접종증명서 필요

17년 11/14 기준



[공지] 페루 경유 입국자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필요 - 17년 11/14 현재

자국 내 황열병(Yellow fever) 확산 차단을 위해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중남미 역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 (중남미·카리브 지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토바고(T&T)

위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이민청 및 콜롬비아 취항 항공사들은 페루·브라질 등 황열병 발병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무작위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콜롬비아 입국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접종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여행객의 콜롬비아 입국을 제한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거절하고 있으며,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상기 WHO에서 규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에 입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전에 접종받은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자 : 2017.11.13.

출처 : 주 페루 한국 대사관 (171230)

[공지] 여행 직거래 플랫폼 '여행거래소' 안드로이드용 (갤럭시 핸드폰) 앱 설치 안내



'여행거래소' 검색 후 설치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아이폰'용은 없어요 (개발하지 않음)

www.GV10.com 참고